

“법의 이치와 계율이 성취되면 천상에 나리라”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51)

비사라는 나쁜 귀신이 부처님을 만나서 깨치다

발기국에 비사라는 귀신이 있었다. 그는 성품이 포악해서 날마다 수십 명씩 백성들을 죽였다. 사람들이 모여서 말했다.

“이 나라를 피하여 멀리 다른 나라로 갑시다.”

귀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다른 나라로 간다 해도 끝내 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들이 자신해서 날마다 한 사람씩 바친다면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이때부터 발기국 사람들은 날마다 돌아가며 한 사람씩을 그 귀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귀신이 잡아먹은 사람의 유골이 계곡에 쌓여갔다. 그때 선각이라는 장자가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재물이 넉넉하고 불물이 많았었다. 그제진 나우라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차례가 되어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했다. 부모는 아들을 목욕시킨 뒤에 좋은 옷을 입혀서 귀신이 있는 데로 갔다. 통곡하며 한없이 울부짖으며 말했다.

“여러 귀신들과 다른 신이시여, 모두 함께 증명하소서. 저는 이 아들 하나뿐입니다. 제발 이 아이를 보살피어 재물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석제환인과 법천왕이시여, 모든 여래의 제자로서 번뇌가 다한 아라한과 벽차불이시여, 그리고 여래시며 가장 높고 어진 복발이시여, 여래보다 뛰어난 이가 없으시니, 여래께서 살피주십시오.”

그리고는 아들을 재단에 올려놓고 물러갔다. 그때 세존께서 천안과 천이로 보고 들으시고 신족의 힘으로 설산의 북쪽에 달아 귀신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가부를 들고 앉아 계셨다. 이때 어린 아들이 멀리서 여래의 광명이 반짝거리며 32상과 80종호로 그 몸이 장엄되었음을 보고 환희함에 넘쳐 말했다.

“여래의 광명을 보았으니 미련 없이 귀신의 재물이 되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우라야,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여래다. 너를 구제하고 귀신을 항복시킬 것이다.”

나우라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예배했다. 이때 세존께서 그를 위하여 미묘한 이치를 말씀하시니,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티끌과 때가 다하고 법안의 깨끗함을 얻었다. 그는 부처님의 법을 보고는 삼보에 귀의하고 5계를 받았다.

그때 나쁜 귀신이 재물을 거두러 오다가 세존께서 단정히 앉아계신 것을 보게 됐다. 귀신은 화를 내면서 비와 우레와 벼락을 치며, 칼을 비처럼 내리기도 했으나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여래께서神通을 써 모두 연꽃으로 만들어버렸다. 또 갖가지 신력을 내렸으나 여래께서는 모두 굴복시켜 그를 항복시켰다. 그러자 귀신은 부처님께 그리 할 수 있는 깊은 이치를 물었다. 그리고 만일 대답하지 못하면 그의 두 다리를 불잡아 바다 남쪽에 던져 넣겠다고 부처님께 말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

씀하셨다.

“사람이건 사람이 아닌건 간에 나의 두 다리를 불잡아 바다 남쪽에 던질 수 있는 이는 없다. 묻고 싶으면 물어라.”

귀신이 물었다.

“어떤 것이 옛 행(故行)이며, 새 행(新行)이며, 행의 사라짐(行滅)입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듣거라. 눈(眼)이 옛 행이다. 옛날에 지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행이 이루어진 것이니, 귀, 코, 입, 몸, 뜻 이것이 옛 행이다. 지금의 이 몸으로 짓는 몸의 새 가지와 입의 새 가지와 뜻이 새 가지인 이것이 새 행이다. 그러므로 알라. 옛 행이 사라져 없어지고 다시 일으키지도 않고 행을 짓지도 않으면서 이 행을 잘 가져서 영원히 나지도 않으며 영원

별하지 못하고 악업을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참회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여래께 아뢰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참회를 받아주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 미묘한 법을 설하시자 그 나쁜 귀신은 손수 수천 냥의 금을 세존께 올렸다. “제가 이제 이 산골짜기를 사방의 스님들에게 보시하니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 받아주소시오.”

세존께서는 귀신의 보시를 받으시고 계승으로 말씀하셨다.

“동산의 열대로서 보시함이 청정하고 / 나무로 교량을 만들며 / 큰 배를 만들어서 / 살림하는 도구들을 베풀겠구나. / 밤이나 낮이나 게으름이 없으면 / 얻게 되는 복이 한량없을 것이며 / 법의 이치와 계율이 성취되면 / 마지막엔 천상의 나리라.”



삼화 · 강병호

히 다하여 남음이 없게 되면 이것을 행의 사라짐이라 한다.”

귀신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지금 몸이 배가 고프니 저의 재물을 돌려주소서.”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내가 보살이었을 적에 어떤 비둘기가 나에게 몸을 던졌을 때도 나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비둘기의 액을 구제했는데 이제 여래가 되어 이 아이를 너에게 먹히기 하겠느냐? 너는 가섭 불때에 일찍이 사문이 되어서 범행을 닦아 지니다가 뒤에 계율을 범했으므로 지금 나쁜 귀신으로 나게 된 것이다.”

그때 나쁜 귀신은 부처님의 거룩한 신력을 받아 문득 옛날에 지었던 모든 행을 기억해내고는 바로 세존께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이제 어리석고 미혹하여 참과 거짓을 분

귀신이 말했다.

“다시 무슨 가르침이 있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본래의 형상을 버리고, 세 가지 가사를 입고 사문이 되어 발기성으로 들어가 대중들에게 ‘여래께서 세간에 나오시어 제도되지 못한 이를 제도하시어 해탈을 얻게 하십시오. 가장 높고 어진 복발께서는 지금 나우라 어린아이를 제도하시고, 비사라는 나쁜 귀신을 항복시켰습니다. 그대들은 그곳으로 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라.”

비사 귀신은 발기국으로 가서 부처님이 시킨 대로 했다. 그때 나우라의 아버지 선각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8만 4천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세존께로 갔다. <증일아함경> 제8권에 나온다. <끝>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⑤



정리와 회향의 시간

목은 살림살이를 정리 하면서

벼르고 베프던 일을 드디어 하게 됐다. 17년이나 된 부엌살림을 오래 전부터 바꾸고 싶었는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일을 벌리고 보니 생각보다 일이 컸다. 구석구석 채워져 있던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하니 끝도 없이 나왔다. 기억도 안 나는 물건들이 줄줄이 나왔다. 너무나 많이 가지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려야 할 물건들, 나누어 주어야 할 물건들, 그러나 쓰지도 않으면서 버릴 수 없는 물건들이었다.

옛날 큰스님들께 공양 올렸던 밥그릇이든 큰 밥술과 냄비와 수저와 그릇들, 제사 용품 등등 덩그러니 남은 두 늙은이 살림살이로는 많은 물건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야말로 ‘짐’ 일뿐이었다.

우리집엔 늘 손님이 많았다. 그때 손님을 치르기 위해 장만했던 그릇들이 쌓여있었다. 쌓여 있는 그릇들이 그 옛날을 생각나게 했다. 늘 집안이 북적이던 그 옛날이 떠올랐다. 그리고 정다운 인연들이 떠올랐다. 그릇들을 그 인연들에게 한 발씩 나누어 주기도 했다.

너무 깊은 곳에 보관되어 생각지도 못했던 보물 같은 것들도 나왔다. 심년이 훨씬 넘은 매실 액기스며 보리뽕술, 그리고 가지가지 담근 것들이 진하게 묵어 있었다. 어쩌면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늘 손님맞이를 즐겨했던 우리 집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공사가 끝났다. 깨끗이 단장된 부엌가구들을 어루만지며 새집 같은 행복감을 느꼈다. 이제부터는 꼭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됐다. 힘든 공사였지만 교훈을 얻었다.

공사로 인해 깨닫게 된 물건들 중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골라 지인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남편도 그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외투하나를 넣어 주었다. 기왕이면 좋은 걸로 보내서 받는 사람이 잘 입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정 스님 말씀대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음이 참 보시일 것이다. 지인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모아두고 버릴 것은 수거함에 버렸다. 재활용품을 버리고, 오래오래 위층에 살고계시는 팔순이 넘은 할머니를 만났다. 그 부지런하시고 정정하시던 할머니가 이제는 걸음도 좋지 못하고 안색도 예전만 못했다.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 말씀이 “나도 얼마 전까지 중풍은 됐었는데...” 하신다. 나는 “지금도 중풍 이상입니다.”고 답해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시절 인연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그러나 비록 몸은 불편한 모습이지만 말씀 하나하나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생각 하나하나가 아직도 정정했다. 머지않아 내 모습도 저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집안에 아직 남아 있는 물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보였다. 늘 놓아버려야 한다고, 비워야 한다고 배우고 다짐하면서 살아왔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소유하기

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삶으로 남은 생을 회향하고 싶다. 그러다보면 가진 것은 줄어들어도 마음은 꼭꼭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치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게 늘 길을 비워놓은 산처럼 살아야겠다. 좋은 사람 미운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 없이 받아줄 수 있는 산처럼 살고 싶다. 봄이면 꽃피고 새 울며 여름이면 무성한 잎으로 더위를 가려주며, 가을이면 형형색색 단풍잎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겨울에는 마른 솔방울 떨어뜨리며 무정법문을 하는 산처럼 살고 싶다.

목은 집을 털어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 하루였다. 목은 짐 속에서 옛날의 기억을 꺼내보듯 한 동안 방치하고 싶었던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나로 인해 마음 아파했거나 불편했던 인연이 있었다면, 나 또한 편치 않은 사연들이 있었다면 이참에 참회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 마음 모두에게 가 닿았으면 좋겠다. 목은 짐을 정리하며 나의 목은 마음들도 정리해본다.

연재를 마치며

2013년 새해부터 쓰게 된 ‘이대원성의 바라밀 일기’가 회향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한편 설섭하기도 하다. 돌이켜 보면 겁 없이 달려왔던 일이었다. 글을 쓰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대책 없이, 그것도 교계 큰 신문이다 글을 쓰기로 했으니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음을 지금에야 알 것 같다.

어느 날 제주도에서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신문사 편집 담당자로부터 원고 독촉을 받고 너무 놀란 적이 있다. 연재를 시작한 것이 후회되고 남은 기간들을 어떻게 매워 나갈 지 막막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을 마무리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그동안 내 부족한 글을 읽어 준 지인들과 독자들에게 죄송스럽고 감사하다. 연재를 통해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아왔음에 감사하고 오랫동안 소식이 뜸해 궁금했던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었다. 상찬을 들으며 지낸 지난 한해는 내게 가장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과 행복을 준 한 해였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서툴고 부끄러워 남에게 알리지도 못했었는데 차츰 주변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임을 알게 됐다.

그 때 마다 글을 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내 글을 보면서 시간 낭비가 되었다면 도리어 죄를 지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작은 공감이나 함께 할 수 있었다면 더 넓은 영광으로 생각한다. 내 생애 최고의 선물로 간직하고 싶다. 그 동안의 이야기가 진정 ‘바라밀 일기’였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어쨌든 부처님과 인연으로 지면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서툰 글들을 교정해주시느라 고생하신 현대불교신문 편집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이대원성 합장. <끝>

부산 연꽃모임회장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공법

특
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공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공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공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공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공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공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공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인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공법

☎ 전화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